소비자의 식품안전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척도개발연구

유현경(충북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주소현(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부교수)

IT의 발전으로 국가간 시장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하나의 시장체계로 통합되면서 교역에 의한 제품의 안전문제가 더욱 중요한 소비자안전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국가별 시장환경 및 관련 법제도 등의 상이함과 소비자들의 안전의식 등의 차이로 인해 안전에 대한 표준과 실태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소비자안전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시장환경이 최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고 제품이 안전하게 생산, 유통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비자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고 능동적으로 소비자 선택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소비자들의 생활안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식품안전의 문제를 주요 분석과제로 삼아, 소비자의 식품안전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지식, 태도, 기능의 세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소비자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역량'이란 능력이나 실력, 자질 등과 유사한 의미이지만 여기에 더해서 실제 해당 행위를 수행해낼 수 있을만한 힘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는 포괄적 의미를 더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식품안전역량을 '스스로 식품선택과 사용, 소비의 전과정에서 안전을 지킬 수 있을만한 지식과 안전을 추구하는 태도 및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식품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률 및 제도, 선행연구들의 고찰을 통해 식품안전역량의 중요한 차원을 ① 식품안전에 대한 전반적 지식, ② 식품안전에 대한 태도, ③ 식품소비 단계별 안전추구행동의 세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2011년 10월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고, 2011년 11월 한달동안 소비자학 전공 교수 3인에게 심도깊은 자문을 요청, 척도의 안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자문조사를 통해 수정된 설문지로 2012년 2월 한달여 기간 동안 소비자학 전문가(박사급) 19인으로부터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최종 척도를 수정, 보완한 뒤 최종 '소비자의 식품안전역량'을 ① 식품안전지식 10문항, ② 식품안전태도 8문항, ③ 식품안전기능 21문항으로 확정하였다.

2012년 3월 15일부터 3월 23일까지 조사전문업체 엠브레인에 조사를 의뢰하여 전국의 성인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1차 소비자의 식품안전역량 측정을 위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고, 1주일간의 시차를 둔 뒤 동일 조사대상자들에게 4월 5일부터 13일까지 2차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식품안전지식의 측면에서는, 총 10문항 중 8개 문항에서 응답자의 정답률이 최소 44% 이상을 보였지만, '채소 냉장보관', '과일세척'의 항목에서는 정답률이 18%와 7%로 매우 저조했다. 다음으로 식품안전태도의 측면은 요인분석결과 정보탐색의 측면과 중요성의 두가지 측면으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각의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모두 0.8 이상으로 매우 안정적이었다. 전반적으로 식품안전태도의 항목들은 평균 3.0 이상의 긍정적인 태도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특히 '중요성'의 문항들은 모두 평균이 4.0을 상회

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품안전역량요인 중 '기능'에 대한 문항들은 요인분석 결과 '성분탐색기능', '위해탐색기능', '위해회피기능', '냉장보관 안전추구기능', '역할확장 안전추구기능'의 총 5개의 요인으로 유목화 되었으며, '기능'을 구성하는 문항 중 '도마 구분 사용', '식용유 재사용', '구매 순서고려'는 공동성 기준 미달 및 적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항으로 분석되어 해당 문항을 삭제하였다. 안전추구기능 항목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 결과, '성분탐색기능', '위생탐색기능', '위해회피기능', '냉장보관 안전추구기능'은 모두 평균 0.3을 상회하였으나, '역할확장 안전추구기능'은 평균이 2.0대의 수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식품 소비자들은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그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태도는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실제 안전을 추구하는 행동성향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위험회피 및 제거를 위해 필수적인 안전지식 또한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송유진 · 유현정(2008) 식품구매시 소비자의 지각된 위험이 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조모형분석: 서울과 상해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9(3), pp. 215-242.

이기헌(2008), 식품위해 인식실태 및 위험커뮤니케이션 방안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34호, pp. 104-133

이정윤, 김규동(2009), 대도시 주부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 및 우려도에 관한연구,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16(6), pp. 999-1007

이종열, 박광국, 장재윤(2007), 행동변화 모델 및 안전의식 지수 개발 연구 용역, **소방방재청, 연구보고서.**

정기혜·김정선·윤시몬·신정훈·김은정·정진욱(2009),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방안 구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정기혜, 윤시몬, 김영래, 서정헌(2004),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인지도 및 그 체감도에 따른 행동유형에 관한 조사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황정선(2009), **소비자안전체감지수 개발 연구**, 한국소비자원

Cummings, L. L. and P. Bromiley(1996), "The Organizational Trust Invento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in R. M. Kramer and T. R. Tyler(Eds.), *Trust in Organizations: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 302-330.

Yoo, H. J., J.E. Lee, E. Song, H.C. Choi, and J.H. Lee(2010), Inter-Country Comparison on Model of Consumers' Safety Pursuit Behavior in Korea, China, Japan, and the USA.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ternational Society fo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stitute of Policy and Management*, Chinese Academy of Science.